

##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걱정의 매개 역할\*

이 예 진<sup>†</sup>   손 현 국   오 서 진   임 유 경   이 동 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이하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 효과와 각 변인 간에 성차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PP와 진로미결정에 대한 걱정의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 중 각 경로의 유의미성과 간명성을 고려할 때, 완전매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 모형을 기준으로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은 남녀 집단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SPP와 걱정,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성격적 특성과 함께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정서 인식에서의 성차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진로미결정, 걱정, 성차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1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심리연구실습 수업(담당교수: 이동귀)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이예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4877, E-mail : lee-yejin@hanmail.net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낮은 보수와 지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성 고정 관념의 제약을 받고 있다(Tinklin, Croxford, Ducklin, & Frame, 2005). 실제로 남녀의 교육수준(대학 진학률: 여성 83.5%, 남성 84%)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졸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61.7%)이 남성(87.4%)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정규직 취업률(여성 41.2%, 남성 54.6%)과 보수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통계연보, 2009). 이러한 현상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로 장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세에 처해있으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로 결정 및 취업 측면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진로 선택이 남성과는 다른 발달 과정임을 밝히고(Fitzgerald, Fessinger, & Betz, 1983; Hakim, 2006; Phillips & Imhoff, 1997; Weitzman, 1992)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가정, 양육에 대한 책임 등으로 남성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Eisenhar & Holland, 1992; Peake & Harris)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Newman, Fuqua 및 Minger (1990)은 진로에서 이런 남녀의 차이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인지적 변인을 포함시키는 좀 더 복잡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변인들을 선정하여 가설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여성과 남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진로 결정과정 상의 성별 차이는 지난 40여년간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남녀의 진로 발달과정의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많은 문헌을 통해 논의되었다.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로 성숙과 진로 장벽의 성차를 조사한 Luzzo(1996)의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진로 성숙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여성이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갈등과 진로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여성은 모성과 직업인이라는 상호배타적인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진로 선택 과정에서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Wilson, 2000). 국내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업 선택에서 확신 차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고향자, 1992)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유부단함을 보이고 진로 정보 획득의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동준, 1997). 진로미결정의 유형을 군집 분석한 허자영(1996)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집단에 여성이 유의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혀 상대적으로 여성이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강차연과 박경(2001)은 한국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진로발달 수준이 낮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회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 결정상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들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다. 남성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Westbrook, Cutts, Madison & Arcia, 1980)와 여성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Taylor & Pompa, 1990)가 혼재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성차가 없다는 연구(Bstz & Voyten, 1997; 최인화, 1998)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차와 관련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에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 지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인 남녀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

진로미결정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한 개인이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며(Gati, Krausz, & Osipow, 1996),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뿐 아니라 진로결정에 대한 특성적인 우유부단함을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이다(Lucas, 1993). 이제까지 진로미결정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발달상 미결정자(indecision)와 만성적 미결정자(chronic indecision)로 미결정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 둘의 특성과 차이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발달상 미결정자들에 비해 만성적 미결정자들이 우유부단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감정적 문제를 동반한 심리적 부적응 등의 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상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과 처치를 위해 이 둘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성격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Callahan & Greenhaus, 1992; Cohen, Chartrand, & Jowdy, 1995; Santos, 2001). 진로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정서와 성격적 측면에서 분류하고자 한 Saka, Gati 및 Kelly(2008)의 연구에서도 이 두 요인이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미결정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진로 지도의 관점이 기존 정보 위주의 접근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진로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성격 특성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기존 연구들은 외적 통제, 낮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역기능적 성격 특성이 진로 발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꾸준히 밝혀왔다(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Nevo, 1987; Stead, Watson, & Foxcroft, 1993). 이런 맥락에서 역기능적 성격 특성 중 하나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이하 SPP)도 진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SPP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의 하위 차원 중 하나로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완벽해지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SPP는 신경증 및 우울감 상승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Hewitt, Flett, & Blankstein, 1991) 지연 행동 및 학업 실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적응적 측면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수행불안이나 실패감, 수치심을 더 자주 경험하며,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미루는 특성이 있다(Hamachek, 1978; Hollender, 1965; Pacht, 1984; Solomon & Rothblum, 1984). 이런 점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진로를 결정할 때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진로결정 상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PP와 진로 관련 변인과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태도성숙, 진로 결정 수준과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우영지, 이기학, 2007; 이예진, 이기학, 2009) 부정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선택 몰입, 진로 결정 수준과 부적 관계가 있으며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ge, Bruch, & Haase, 2008; 이재창, 최인화 2006).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SPP와 진로미결정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SPP와 진로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이 두 변인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관련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제 3의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로 결정을 앞둔 대학생들의 선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정서상 특징으로 ‘걱정’을 들 수 있다. Borkovec, Robinson, Pruzinsky와 DePree (1983)는 걱정을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며 상대적으로 통계 불가능한 사고와 심상의 연쇄라고 정의하였다. 대학생들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자신의 적성·흥미·성격과 맞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선택한 직업에 만족할 수 있을지 등 수많은 질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걱

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적 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왜곡을 보이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보다는 인지적 회피의 특성을 보이며(Borkovec, 1985) 높은 수준의 걱정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문제 해결 지향 능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승원, 오경자, 2008). 이를 통해 진로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걱정이 진로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걱정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걱정이 주된 증상인 불안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이 둘간에 정적 관계에 있음이 보고되었다(Fuqua, Seaworth, & Newman, 1987; Kaplan & Brown, 1987; Santos, 2001). 걱정과 불안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할 듯 보이나, 임상적으로 걱정이 불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불안은 정서 이외에 쉽게 피로해짐, 근육 긴장, 수면 장애 등의 여러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상태로 포괄적으로 쓰인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를 잘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성 불안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성격 요소로도 분류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서적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걱정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걱정은 성격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비관주의와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 부정적 성격 특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성진, 권석만, 2000), Davey(1994)

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의해 정상적인 걱정이 병리적인 걱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적절한 수준의 걱정은 개인이 문제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 생활에 적응적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일상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걱정이 병리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술한 바와 같이 성격적 특성이 걱정의 병리적 발전을 예견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걱정이 부정적 성격 특성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PP)의 영향을 받을 때, 더욱 병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걱정이 성격의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걱정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더불어 SPP와 진로미결정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걱정이 둘 사이를 부분매개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 내적 변인인 성격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정서의 영향은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나 진로상담에서 진로를 결정하고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자주 관찰되면서 진로 결정 과정에서 정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진로변인과 성차와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무게를 싣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실제로 남녀의 심리적 기제의 차이가 어떻게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탐색은 아직 희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결정 과정에

성격 특성과 정서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 이런 개인 내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진로 결정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과 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격 및 정서 변인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걱정을 선정, 둘간에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 구조 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시적인 미결정 상태에 있는 발달상 미결정자들이 있는 반면, 우유부단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한 만성적인 미결정자들도 존재한다. 진로 상담자는 이들에 대한 개입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이 매우 높고 미성숙한 개인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합할 것이며 미결정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진로 지도를 필요치 않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진로 지도를 위해 진로상담자는 개인차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로 개입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더욱이 직업 장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대한 진로 개입 방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 상태를 잘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격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런 변인들에 대한 성차를 확인해보음으로써 진로 상담에 이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걱정이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둘째, 이들 변인간 관련성의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남학생 103명, 여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19세( $SD = 2.38$ )였고 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였으나 주로 상경, 경영계열과 문과계열이 주를 이루었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12부가 수거 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을 제외 202명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한기연, 199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도구로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라는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Hewitt과 Flett(1991)에 의

하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은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 비판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또한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은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그들이 완벽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며 자신들을 엄격히 평가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선행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이 .86,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이 .8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이 .87로 보고되었다(Hewitt & Flett, 1991).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이 .74,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이 .87,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이 .81로 나타났다. 연구의 목적상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의 문항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모형 검증을 위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타인의 높은 기준과 조건적 수용이라는 두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Stoeber, Kempe, & Keogh, 2008).

####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Meyer, Miller, Metzger 및 Borkovec(1990)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김정원과 민병배(1998)에 의해 번안된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16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범불안장애의 주증상인 ‘만성

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불안장애 집단과 불안하지 않은 집단 및 다른 불안집단과의 구분을 신뢰롭게 해주는 도구로 밝혀졌다(Davey, 1993; Molina & Borkovec, 1994). 임상 집단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95라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8주에서 10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 1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 진로미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고향자, 1992)

진로미결정은 Osipow, Carney, Winer, Yanico 및 Koschier(1980)의 Career Decision Scale(CDS)를 고향자(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아주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18문항과 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두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서로 구별되는 진로미결정의 선행요인들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 두 문항과 자유반응형 문항을 제외한 16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항들은 확신결여, 정보부족, 선택갈등, 그리고 내외적 갈등과 같은 항목들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Osipow 등(1980)이 보고한 이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및 .82였으며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86, 반분 신뢰도 .80, 검사-재검사 신뢰도 .79로 CDS와

의사결정유형검사간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본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미결정 척도의 총합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우선, SPSS 15.0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평균값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인 간의 구조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였다. 이 때, 자료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값이 각각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Malik, & Lee, 2003).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최대우도추정 방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chi^2$  검정과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세 가지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고려하는 바람직한 지수로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각 지수는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각각 나타낸

다(Browne & Cudeck, 1993). 끝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1986)의 Z공식<sup>1)</sup>을 이용하였다.

## 결 과

###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참가자는 총 202명이었으며 남학생 103명(51%), 여학생 99명(49%)로 남녀 비율은 비슷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19세( $SD = 2.38$ )로 여학생(20.95세)보다 남학생(23.35세)의 연령이 높았으며( $t = 8.238, df = 198, p < .001$ ),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명(5.9%), 2학년 62명(30.7%), 3학년 59명(29.2%), 4학년 69명(34.2%) 등으로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생들의 전공별 구성은 상경·경영계열(41.6%), 문과계열(34.7%), 공과계열(10.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에 이 후 매개 모형 검증에서 성별을 통제하지 않고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 \quad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a: 독립변인으로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 매개변인으로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S_a$ ,  $S_b$ : a와 b의 표준오차)

###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SPP가 높을수록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PP와 진로미결정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전체집단의 측정모형 검증

AMOS 7.0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이론 변인을 구성하는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들에 의해 잘 측정되는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언급한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측정모형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24, N = 202) = 44.237, p = .007, TLI = .959, CFI = .973, RMSEA = .065(90\% \text{ 신뢰구간(CI): .033-.094})$ ).

### 걱정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SPP와 진로미결정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olmbeck(1997)이 제안한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 먼저 예측변인인 SPP가 직접 결과변인인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모형을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SPP가 매개변인인 걱정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인인 걱정이 결과변인인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모형을

표 1.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전체 (n = 202)	남학생 (n = 103)	여학생 (n = 99)	F(1, 200)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47.15(7.85)	48.10(7.76)	46.16(7.86)	3.104
걱정	51.40(12.89)	50.99(14.05)	51.82(11.63)	.207
진로미결정	35.60(8.25)	34.77(8.73)	36.46(7.66)	2.147

표 2. 연구변인들 간 상관

	1	2	3
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2. 걱정	.43**	-	
3. 진로미결정	.12	.26**	-

\*\*  $p < .01$ .

검증하였다. 두 모형 모두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으나, 예측변인인 SPP가 결과변인인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경우 경로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인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Shrout와 Bolger(2002)에 의하면 예언변인과 결과변인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여 두 변인의 인과관계 사이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위 1단계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제안하였다. SPP는 완벽주의 성격 특성 중 하나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대학생 시기 훨씬 이전인 어린 시절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의 형성 요인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정신역동이론(Burns, 1980), 학습이론(Patch, 1984), 인지가이론(Hollender, 1965)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 모두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 동안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약화되고 제 3의 다른 변인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하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로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나누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걱정의 부분매개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24, N = 202) = 44.237, p = .007, TLI = .959, CFI = .973, RMSEA = .065(90\% CI: .033-.094)$ ). 그러나 SPP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완전매개 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하였고( $\chi^2(df = 25, N = 202) = 44.246, p = .010, TLI = .962, CFI = .974, RMSEA = .062(90\% CI: .030-.091)$ ) SPP에서 걱정으로 가는 경로( $\beta = .691, p < .001$ ),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 $\beta = .314, p < .001$ )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는 SPP가 걱정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성별에 따른 모형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기저모형 설정을 위해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 차이를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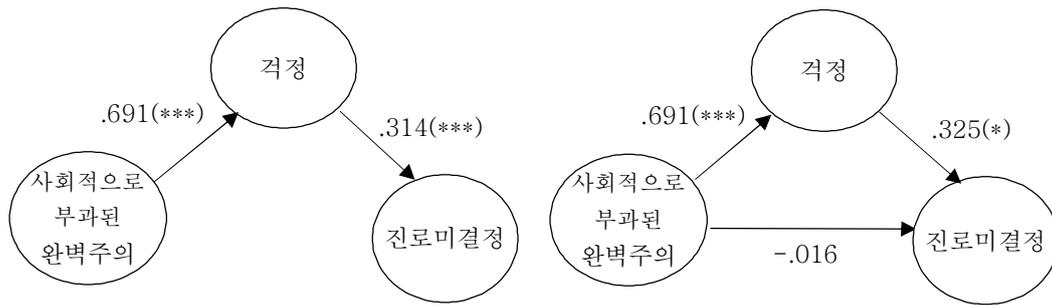


그림 1. 걱정의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5$ , \*\*\*  $p < .001$ )

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Delta\chi^2(df = 1, N = 202) = .009, p < .001$ ].  $\chi^2$  차이검증이 유의하지 않고 적합도 지수 또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과 경로의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SPP가 걱정을 통해서만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걱정의 완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걱정의 부분매개를 예상한 가설과는 차이가 있지만,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걱정이 매개함을 나타내며 Shrouf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바와 같이 예언변인과 결과변인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할 때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완전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 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pm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 결과,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는  $Z = 2.622(p = .009)$ 으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차 모형검증

앞서 채택한 걱정의 완전매개 모형을 바탕으로 SPP, 걱정,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모형이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이용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교차 타당성이 같은 모형에서 두 개의 표본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연구 모형이 각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Byrne, 2001). 이를 위하여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측정 동일성 제약은 각 집단 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며(MacCallum, Roznowski, & Reith, 1994) 이를 충족 시, 집단 간 교차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집단 간 등가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Byrne, 2001).

첫 단계로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하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가 나타나  $\chi^2(df = 56, N = 202) = 72.470, p = .068, TLI = .971, CFI = .977, RMSEA = .038(90\% CI: .000-.062)$  남녀 집단의 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남녀 각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델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Delta\chi^2(df = 2, N = 202) = .669, \Delta TLI = -.003]$ . 또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녀의 경로계수 값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 집단의 경우 SPP와 걱정,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나, 여성 집단의 경우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녀 집단에 대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집단의  $Z = 2.004(p = .005)$ 로 걱정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진로미결정의 23.25% 설명하였으나, 여학생 집단의  $Z = 1.647(p = .10)$ 로 나타나 걱정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걱정과 진로미결정간의 경로가 성별에 따라 설명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연령이 낮았다는 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학년(3, 4학년)과 저학년(1, 2학년)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충분히 양호하였으며  $[\chi^2(df = 56, N = 202) = 86.203, p = .006, TLI = .947, CFI = .959, RMSEA = .052(90\% CI: .000-.062)]$

표 3.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수	남학생	여학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걱정	.31*(.644)	.28**(737)
걱정 → 진로미결정	1.62***(.361)	1.04(.227)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 ) 안에 제시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4.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들 간 남녀집단 차이 비교

	$\Delta df$	$\Delta\chi^2$	$\Delta TLI$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걱정	1	.050	-.002
걱정 → 진로미결정	1	.617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	.669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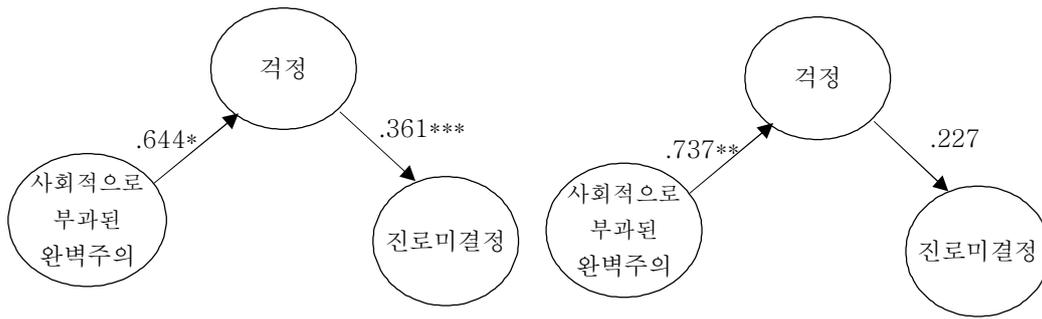


그림 2. 남녀 집단의 요인 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주. 모든 경로와 요인 적재치에 남녀 집단 간에 동일성의 제약을 가한 모델임.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의 모형이며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p < .05$ , \*\*  $p < .01$ , \*\*\*  $p < .001$ )

CI: .026-.071)] 경로는 고학년과 저학년 집단에서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에 학년 간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녀 집단간 걱정과 진로미결정의 경로 차이는 학년의 차이를 반영하기보다 성차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모형으로서 SPP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를 설정한 모형의 성차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와 그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걱정이 완전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PP 성향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SPP가 높더라도 걱정을 할 때에만 진로미결정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SPP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신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타인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본 연구 결과에서 SPP 성향이 걱정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특성은 진로 결정과도 같은 개인의 중요한 순간에 더 많이 걱정하게 만들고 지나친 걱정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SPP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정도를 이해하고 그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변인인 걱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진로 상담자는 진로미결정자의 부정적 성격 특성과 함께 걱정처럼 성격과 맞물려 작동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의 깊이와 심각

성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인 SPP와 결과변인인 진로미결정 간에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변인 간 정적 관계를 보고한 기존 연구들(우영지, 이기학, 2007; 이예진, 이기학, 2009; 이재창, 최인화, 2006; Page, Bruch, & Haase, 2008)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진술한 Shrout와 Bolger(2002)의 연구 외에 수집된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수도권 소재의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들로부터 거의 수집되었다. Lent, Brown 및 Hackett(2000)은 사회적 약자에게 진로장벽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경우, 취업 장면에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해 더 염려하고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상기 집단의 진로 결정 과정은 개인의 성격 및 정서 상태보다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점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P가 걱정을 완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 특성과 진로 결정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성격과 진로 결정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탐구한다면 실제 진로 지도 장면에서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다.

둘째, 걱정의 매개모형에서 각 변인과의 관계가 남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남녀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모형 간 경로계수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아 상기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용됨을 밝혔다. 그러나 개별 모델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들은 이 경로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남녀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심리적 기제로서의 정서인 걱정의 설명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진로에 대한 걱정은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남녀의 걱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성별에 따른 걱정의 차이가 진로 결정 행동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진로 결정 행동과 관련하여 걱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들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진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부터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제약을 인지하게 되며 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으로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손은령, 2002에서 재인용: 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Suthakaran, 2001; Luzzo & Jenkins, 1996; Luzzo, 1997)들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손은령과 손진희(2005)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진로 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은 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걱정이 맥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격 특성에 따른 걱정보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걱정이 여성

의 진로 결정 과정에 더 큰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의 진로 결정 과정이 남성에게 비해 성격 특성과 정서 외에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의 진로 결정 과정이 더 복잡함을 밝힌 기존 연구 결과들(Fitzgerald & Betz, 1983; Hakim, 2006; Phillips & Imhoff, 1997; Weitzman, 1992; 손은령, 손진희, 2005)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인 SPP가 걱정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상기 모형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의 경우 SPP 성향이 높을수록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높은 SPP 성향으로 인한 걱정의 설명력이 남성에게 비해 작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진로 상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자신의 미래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걱정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가된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야기하고 계속 증폭되는 현상을 띄게 된다(Borkovec, Wilkinson, Folensbee, & Lerman, 1983). 특히, 걱정이 개인의 부정적 성격 특성과 맞물릴 때, 걱정은 더욱 병리적인 현상을 띄게 되고 일상생활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된다(Davey, 1994a). 그러므로 진로 상담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비관적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성격 특성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을 진단하여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줌으로써 진로 상담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즉, 진로미결정자들의 걱정이 병리적인 수준인지를 가늠하

여 걱정이 그 시기의 보편적 정서임을 인지적으로 일깨워주고 감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완화시켜 줌으로써 심리적 불편감을 덜어 걱정 자체가 진로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주어야 한다. 반면, 진로 결정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걱정 수준을 완화시켜줌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진로 여건은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 실례로 남성 중심의 직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공학 계열에서 여성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상대적 열세 분위기는 여성이 이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tin & Sax, 1996). 이를 통해 짐작하건데,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열세인 취업 분위기는 여성이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여건은 여성과 남성의 진로 인식과 준비 과정에 차이를 가져오고 진로에 대한 부적 정서에도 상당 부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진로와 관련하여 항상 더 불리한 입장에서 있으며 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은 일정 부분 현실 여건에 기반한 실제적인 걱정이라는 점에서 남성의 걱정과는 차별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의 진로에 대한 걱정은 진로 결정 시점인 대학생이 되어 새로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진로를 구체화해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이후 시기부터 형성되어 만성적으로 이들의 진로를 제약하고 한정짓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진로 상담자는 여학생들의 걱정을 다룸에 있어서 남학생들과는 차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걱정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감정의 정상화 외에 그들의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을 알아보고 이

를 낮출 수 있도록 직업 정보 및 준비 과정 안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성격 특성 및 정서 변인과 함께 성차의 영향을 동시에 알아보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진로 행동과 관련된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 양식, 성격 등의 개별 변인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이 진로미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김계현, 김봉환, 1995). 이는 진로미결정이 단순한 상태가 아닌 사람마다 각기 다른 표현 양상과 원인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Fuqua, Blum, & Hartman, 1988) 개인의 진로 결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격적 특성인 SPP는 진로미결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정서인 걱정을 매개로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진로 결정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성격적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는 정서 변인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 상태 외에 성차 역시 진로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진로 지도 장면에서 차별적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SPP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인 걱정의 매개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쳤으나 추후 성격과 정서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 변인과 정서 변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차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진로미결정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치와 효과적 개입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 결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맥락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개인·심리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본 연구 결과에서 SPP와 진로미결정 간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걱정의 매개모형에서 경로계수에 성차가 나타난 것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뿐만 아니라 맥락적 변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끝으로 진로와 관련된 걱정에서 남녀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남녀 집단에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경로계수에서 남녀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자료에서 여학생의 평균 연령이 남학생의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걱정에서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의 차이가 성별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체 집단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추가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 간에는 경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걱정과 진로미결정간의 경로 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걱

정의 질적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걱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만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와 관련된 걱정에서 남녀의 질적 차이를 알아보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로와 관련하여 남녀의 걱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걱정의 성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차연, 박 경 (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51-69.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2008). 교육통계연보.
- 김동준 (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계현, 김봉환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설승원, 오경자 (2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 통제감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문제 해결 지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09-235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 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유성진, 권석만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특징. 심리과학, 9(1), 15-38.
- 이예진, 이기학 (2009). 대학생의 모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연구: 완벽주의와 외재적 일가치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원, 12(3), 47-70.
- 이재창, 최인화 (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최인화 (1998).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교: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허자영 (1996). 대학생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통계청 (2009).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 통계청 (2009). 취업통계연보.
- Astin, H. S. & Sax, L. J. (1996). Developing

- scientific talent in undergraduate women. in Davis, Cinda-Sue et al., (1996). *The equity equation: fostering the advancement of women in science, mathematics, and engineering*. Jossey-Bass Publisher, pp.96-12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orkovec, T. D. (1985). Worry: a potentially valuable concep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4), 481-482.
-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J.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1), 9-16.
- Borkovec, T. D., Wilkinson, L., Folensbee, R., & Lerman, C. (1983). Stimulus control applications to the treatment of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3), 247-25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2), 230-25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J,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llah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3), 212-231.
- Cohen, C. R., &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Davey, G. C. L. (1993). A comparison of three worry questionnair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 51-56.
- Davey, G. C. L. (1994). Pathological worrying as exacerbated problem-solving.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35-39). Chichester, England: Wiley.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isenhar. M. A. & Holland, D. (1992). Gender constructs and career commitment: the influence of peer culture in women in college. 142-180. In T. L. Whitehead & B. V. Reid (Eds.), *Gender constructs and social issue*. (pp. 142-180). Urban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Fitzgerald, L. F., Fessinger, R. E., & Betz, N. E. (1983). *Issues of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In W. B. Walsh & S. B.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Hillsdale, NY:

- Erlbaum.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2), 85-94.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65-373.
-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2), 175-186.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Hakim, C. (2006). Women, career and work life preferen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 279-294.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Flett, G. L., & Blankstein, K. R. (1991). Perfectionism and neuroticism in psychiatric patients and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273-279.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3.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Kaplan, D. M., & Brown, D. (1987). The role of anxiety in career indecisive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2), 148-162.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39-446.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46.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MacCallum, R. C., Roznowski, M., Mar, C. M., & Reith, J. V. (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9(1), 1-32.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8(6), 487-495.
- Molina, S., & Borkovec, T. D. (1994).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ssociated characteristics.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rapy, assessment and treatment* (pp.265-283). Chichester, England: Wiley.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 (1990). *A discriminant study of gender differences on career subscales*. Paper presented at the 98th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r Consulting and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390.
- Page, J., Bruch, M. A., & Haase, R. F. (2008). Role of perfectionism and five-factor model traits in career indeci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8), 811-815.
-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3), 405-421.
- Phillips, D. D., & Imhoff, A. R. (1997). Women and career development: A decade of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1-59.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antos, P. J.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4), 381-39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6, 159-186.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ad, G. B., Watson, M. B., & Foxcroft, C. D. (1993). The relation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irrational beliefs among university

-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2), 155-169.
- Stoeber, J., Kempe, T., & Keogh, E. J. (2008). Facets of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elings of pride, shame, and guilt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7), 1506-1516.
- Taylor, K. M., & Pomp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1), 17-31.
- Tinklin, T., Croxford, L., Ducklin, A., & Frame, B. (2005). Gender and attitudes to work and family roles: the views of young people at the millennium. *Gender and Education*, 17(2), 129-142.
- Weitzman, L. M.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realism of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69-284.
- Westbrook, B. W., Cutts, J. O., Madison, S. S., & Arcia, M. A. (1980). The validity of the crites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49-281.
- Wilson, L. M.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gender, race and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1 차원고접수 : 2010. 2. 04.  
심사통과접수 : 2010. 3. 15.  
최종원고접수 : 2010. 3. 24.

## **The Sex Difference in Relationship Model among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on Effect of Worry**

**Ye-Jin Lee   Hyun-Kook Son   Seo-Jin Oh   You-Kyung Lim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wor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SPP)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CI) among college students. Next,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ers by gender on the mediation model. The results using structural equation preferred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over the partial mediation. In addition, the multi-group analysis was applied to the test for examining gender difference based on complete mediation model. Finding indicated that model of mediation effect of worry produced good fit to the data across gender. But there's a little bit of gender difference in the path between worry and CI. For males, all paths in the mediation model were significant. For females, however, the path between worry and CI was not significant. This contrasted result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gender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nd affect recognition to understand career 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SPP), career indecision(CI), worry, gender difference*